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 오늘 백악관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당초 트럼프가 발표한 125%가 아닌 총 145%로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펜타닐 밀매 문제로 20% 관세 부과를 포함한 관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관세 여파 앞두고 미 인플레 예상외로 둔화
- WSJ: 미 소비자들, 코로나 악몽 기억하며 또 사재기 분위기

[미국 금융]

- WSJ: 30년 국채 경매 앞두고 국채 수익률 하락

[미 관세 여파]

- WSJ: 트럼프 관세 전쟁, 중국과 위험한 정면 대결로 전환
- WSJ: 중국의 보복 정책은 미 기업들을 겨냥한다
- Bloomberg: 90일 관세 유예에도 일본, 계속해서 관세 축소 모색
- CNBC: 유럽 연합도 미국처럼 90일 보복 관세 유예

[물류]

- WSJ: 컨테이너 선박 회사들 중국과 유럽행 취소

[인공지능]

- WSJ: AI 봄 확산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전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아마존 CEO “관세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높아”
- Bloomberg: 월마트, 가격표 부착 중단에 혼란 가중
- Bloomberg: 아우디, 관세 여파로 베스트셀러 SUV 미국 판매 힘들어져
- WSJ: 유니클로, 매출 성장에 수익 전망치 상향 조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Inflation Unexpectedly Slows Down Ahead of Tariffs Impact

관세 여파 앞두고 미 인플레 예상외로 둔화

- 3월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관세가 물가 압력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주는 신호로 보인다.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2월 대비 단지 0.1% 상승했는데, 지난 9개월간 둔화 속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 는 연방 노동청이 오늘 목요일 발표한 내용이다.
-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도 2월에 비해 0.1%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이다.
 - 특히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에너지 비용, 중고차, 호텔비, 항공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둔화되었다.

Bloomberg 기사

WSJ: Buy Now or Save Up? How Consumers Are Weighing Economic Mayhem

미 소비자들, 코로나 악몽 기억하며 또 사재기 분위기

- 트럼프가 어제 수요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수입품에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하는 등 관세에 대한 불확실한 우려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상용품과 자동차, 전자 제품들을 서둘러 사들이고 있다.
- 관련 신용 카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Earnest Analytics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에는 최근 4주 평균보다도 애플 매장 소비자 지출이 33%, Restoration 하드웨어 26%, 홈 디포는 10% 더 늘어났다.
- 기업들도 관세 이전에 재고를 계속 늘리고 있다. 기업들은 과도한 재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비축 부담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관세 비용을 홍보하면서 가격 인상 전에 빨리 구입하도록 광고도 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Treasury Yields Turn Higher Ahead of 30-Year Bond Auction 30년 국채 경매 앞두고 국채 수익률 하락

- 트레이더들이 오늘 목요일 2백20억 불 규모의 30년 국채 경매를 앞두고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국채 가격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 국채 가격이 상승할 때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데 연준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한 단기채의 경우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채 금리는 오늘 물가 지수 발표 이전보다 상승했다. 이들 국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수 있어 이번 주 들어 압력을 받고 있다.
- 오늘 30년 국채 경매는 어제 10년물 경매가 성공적인 상황이 된 이후에 수요에 대한 또 다른 테스트가 될 수 있다.

WSJ 기사

[미 관세 여파]

WSJ: Trump Transforms Tariff War Into High-Stakes Showdown With China

트럼프 관세 전쟁, 중국과 위험한 정면 대결로 전환

-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수요일 외국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90일 유예기로 하고 중국에 대해 총 125% 관세를 물리면서 '체면 살리기' 협상 입장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시진핑 중국 주석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관계자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시책에 쉽사리 물러서지 않아 양국의 무역 전쟁은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WSJ: China Has Readied a Trade-War Arsenal That Takes Aim at U.S. Companies

중국의 보복 정책은 미 기업들을 겨냥한다

- 중국은 미국산에 84%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국방 및 항공 관련 미 기업 6개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미 제조업체 12개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제재를 가했다.
- 중국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이상으로 중국 시장에 관심 많은 미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국방 생산품에 사용하는 희토류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사를 시행, 중국 판매 미 회사들에 대한 블랙 리스트 실시 등이다.
- 또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WSJ 기사

Bloomberg: Japan to Keep Pressing for Tariff Relief During 90-Day Pause

90일 관세 유예에도 일본, 계속해서 관세 축소 모색

- 일본은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개선 차원에서 미국에 관세 제고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 일본의 대표단은 관세 여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검토를 미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 한편, 연방 재무장관은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대표단과 향후 수일 내에 관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European Union to put countermeasures to U.S. tariffs on hold for 90 days

유럽 연합도 미국처럼 90일 보복 관세 유예

- 어제 목요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도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EU의 집행 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은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높은 관세율을 90일 유예기로 한 결정에 주목하며, “우리는 협상할 가능성을 희망한다... 그러나 협상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물류]

WSJ: Container-Shipping Firms Cancel Sailings to U.S. and Europe 컨테이너 선박 회사들 중국과 유럽행 취소

- 관련 선적 데이터 센터인 eeSea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선적 선박 숫자가 줄고 있다.
- 이른바 블랭크 항해(blank sailing)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연기 시켜 용량을 줄이는 방식인데 이같은 선박들이 유럽항만에 4월과 5월, 6월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블랭크 항해가 늘어가고 있다.
-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5월에 소매 컨테이너 수입이 20.5% 감소했다. 소매업체들이 관세 전에 수입 물량을 늘린 후에 새로운 주문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AI Boom to Fuel Surge in Data Center Energy Needs, IEA Says AI 붐 확산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붐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I 전용 데이터센터 수요는 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의 전력 소비는 일본의 현재 총 소비량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 2030년까지 미국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AI 기반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전력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집중도 높은 인프라로 인한 병목현상 위험도 지적됐다.
- 데이터센터는 2035년까지 전력 관련 탄소배출량이 현재 1.8억 톤에서 3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EA는 AI가 에너지 효율 개선, 교통 최적화, 자원 활용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 기후 변화 가속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Amazon CEO Andy Jassy says he believes sellers will pass increased tariff costs on to consumers

아마존 CEO “관세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높아”

- 아마존 CEO Andy Jassy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여유 마진이 없는 판매자들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마존은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해 전략적으로 선제 재고 확보에 나섰으며, 일부 중국산 직수입 주문은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 또한 아마존은 AI 관련 데이터센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관세 영향 우려가 있는 부품 공급망을 이미 다변화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Bloomberg: Walmart's Missing Prices Show Trade Chaos Coming for Consumers

월마트, 가격표 부착 중단에 혼란 가중

- 중국 내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생산해 제공하는 공장에게 월마트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한다.
- 트럼프의 보복 관세로 중국산 수입세의 125% 상승으로 미 소매업체들은 주문을 중단하고 출하를 보류 중이다.
- 이에 중국 수출업체들은 무력감을 드러냈다. 일부 업체는 관세 회피를 위해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려 했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도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대응이 막힌 상태다.

Bloomberg: Audi's Top-Selling SUV Expected to Be Unsellable in US After Trump Tariffs

아우디, 관세 여파로 베스트셀러 SUV 미국 판매 힘들어져

- 미국에서 아우디의 베스트셀러인 Q5가 멕시코 생산이라는 이유로 최대 5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이는 자동차 관세(25%), 멕시코 수입품 관세(25%), 미·멕시코 무역협정 미준수에 따른 별차성 관세(2.5%)가 중복 적용된 결과다.
-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공급망이 흔들리고 판매가 위협받고 있다.

- 아우디는 현재 관세 적용 차량을 미국 항구에 보류 중이며, 모회사인 폭스바겐은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미국 테네시 공장 확장과 신규 공장 활용 전략을 검토 중이다.

Bloomberg 기사

WSJ: Uniqlo Owner Boosts Earnings Forecast as Revenue Grows Across Regions

유니클로, 매출 성장에 수익 전망치 상향 조정

-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은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상반기 순이익이 2월 28일 마감 기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335억 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마감인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4100억 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 회사 측은 미 유니클로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은 관세 영향 가능성에 반영해 하향 조정했으나, 대부분의 제품이 미리 미국에 반입돼 있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CEO는 생산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패스트리테일링은 오는 8월까지 전 세계 매장 수를 3,68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WSJ 기사

[보고서]

대반전의 18시간...꿈쩍않던 트럼프를 움직인 것은

정치권·월가 반발, 채권시장 불안에 전략 선회한듯

"관세 유예 발표 전 공화 의원·외국 지도자들과 통화"

베선트 미 재무 "처음부터 대통령의 전략"

'월가 황제' 다이먼 발언 영향 분석도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관세 폭탄을 안기고도 꿈쩍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와 월가의 반발, 정치권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8일 저녁부터 9일 오후까지 18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무역 참모들이 여러 공화당 의원, 외국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과 외국 지도자들은 흔들리는 세계 시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